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자가 남자에게 배워야 할 점 6가지

첫째, 눈물을 아낄 것.

직장 상사에게 혼나거나 친구·부부간 의견 갈등, 실연 때문에 자주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남자들의 '허허실실'을 배워라.

자존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태도다. 나쁜 상황을 마음 속에서 빨리 없애는 여유가 여성들에게도 필요하다.

셋째, 재깎 것은 제친다.

만사를 제쳐 놓고 축구, 낚시 등에 빠지는 것도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지혜. 여성들도 일과 여가를 분리해 수영 등산 바둑 독서 등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일과 사람을 분리하라.

때때로 냉정하게 보이는 남자들의 태도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게 편잔을 듣더라도 마음에 담아두거나 미워하지 말 것.

다섯째, 남을 헐뜯지 말 것.

남성들은 가정에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아내를 헐뜯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화로 친구, 친정식구 등에게 남편, 직장상사 흉보는 일이 다반사다.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을 아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

힘들어도 참고 묵묵하게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남성들의 책임감을 여성들도 배워야 한다.



◀학창시절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슬럼가의 천덕꾸러기 학생들이 흑인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교육으로 변해가는 감동적인 내용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원제목은 To sir with love 였죠. 주제곡은 지금 들어도 그때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던 철부지에서 향수를 뿌리는 숙녀로 키워준 당신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겠어요. 하늘을 원하신다면 수천 피트 높이의 하늘을 가로 질러 ‘사랑하는 선생님께’ 라고 글씨를 쓰겠어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노래 가사에 한 치의 여백도 남기지 않고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0월 9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영혼과 범사와 육이 잘되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일을 하심에 선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가는 발길을 인도하셨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안에 거하길 원하니 함께 하셨으며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며  
 『소망의 하나님』 절망중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꿈을 주셨고  
 『역전의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나 역전 시키셨으며  
 『멋쟁이 하나님』 기도 할때 응답하셨으며 좋은것으로 채워주셨고  
 『기쁨의 하나님』 내 맘의 평안을 주시므로 그 기쁨을 주체 못하였고  
 『질서의 하나님』 일을 처리하심에 질서가 있었으며  
 『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루심에 급하지 아니하셨으며  
 『더디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이루시니  
 『손해 없으신 하나님』 잃은듯하나 전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셨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함에 질투하셨으며  
 『진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진노하기를 더디 하셨으며  
 『진노 하심에 두려운 하나님』 아침부터 밤늦까지 수고함을 새벽에 취하시니  
 『그 손에 붙여짐에 두려운 하나님』 그 진노하심이 자손에게 미치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교만한자를 원치 않으셨으며  
 『우리의 심증을 보시는 하나님』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옴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같이.

◀말씀따라 행하기▶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여라.  
 그러면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인품따라 행하기▶

“살면서 버려야 할 3가지”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지나간 젊음에 대한 향수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9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7 (요 15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05장	
기도 Pray		현석호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금훤히 여기는 자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78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박성천 목사, 이태한 목사 가정)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2	최재학	박영태	조재근, 방영아	<현관> 김종건 이광희
9	현석호	박재양	교역자	
16	김교섭	박정자		
23	김순자	박태원	김용석, 최신덕	<본당> 노은숙 정희자
30	김영길	박하림	김상덕, 박재란	

### ◆10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이웃교회참석수요예배(5) 구역예배(7일)
9		믿음의어머니기도회(11)
16		
23		
30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2시

- 교우소식
  -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Arthur Chang, 장은정 성도 말 출산
    - \*아기 이름을 "Tiffany"로 지었습니다. 한달간 몸 조리 잘 한 후 아기의 첫 성전 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처럼, 축하합니다.
  - <형님의 장례식 마치고 귀국> 김경천 집사. 불과 2년 연상이던 형님의 별세는 내 한쪽을 떼어낸 듯한 아픔일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위로가 될런지요!
-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 \*요즘 수요일예배에 빈자리가 등성등성 보이면 마음 안쪽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듯 합니다. 저도 더 분발하고 기도하여 더 깊은 민수기의 말씀으로 잠기도록 하렵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 내어 봅시다.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11일(화) 오후 1시, 본당
  - \*교회 공사로 어수선한 지금이기에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비용 모금 Sausage Sizzle" (\$2)
  - \*우리교회의 젊은 예수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간단한 Sausage를 잡수어 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은 용기가 납니다. 복음사역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려는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 11월 셋째주일 "세례식"
  - \*14세 이상, 꾸준히 교회출석 1년이상(타교회 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우께서는 신청하여 주십시오.
  - \* "기초신앙반" 이수자, 혹은 참석교우는 세례문답이 면제됩니다.

### ◀착한 시인들▶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이정하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함께 걸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울고 있는 사람에겐  
손수건 한 장보다  
기대어 울 수 있는  
가슴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임을  
그대를 만나고서부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어디 있는가...

웬 비가 한 주간 동안 쉬임없이 오는지요. 참 좋지 않은 환경속에 산다는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세상의 많은 아름다움이 "비"로 인해 생겼음이 생각나 경솔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비를 보며 감동으로 만들어진 시인의 시, 사막을 적셔주는 비, 기다렸던 비를 맞으며 줄인 마음 넉넉해 하는 농부, 떨어지는 풀잎 낙수비에 몸 적시던 청개구리.... 아무려면 세상이 우리를 녹녹하게 하여도 그것을 노래로, 아름다움으로 돌릴 줄 아는 속이 넓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